

# 사 랑

| 김흥호 |

사람이 하루를 살더라도 사랑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는 것 같아도 이기는 사랑의 세계에 대하여..(편집자 주).



로마서 12 : 14~21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 주십시오.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써 악을 이겨내십시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처음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시오”라고 시작됩니다. 또 17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말이 있고 또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너희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들이 너희에게 와서 먹을 것을 달라면 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랑>이라고 붙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설명으로, 너희 친한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면 뭐가 훌륭하냐. 결국 너희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다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이다, 사랑의 완전함이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랑에 대한 얘기가 여럿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친구를 사랑하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참 큰 사랑이다. 이외에 더 큰 사랑은 없다”란 표현이 있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로 사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불쌍한 사람, 이웃, 친구는 사랑할 수 있지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고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배고픈 자를 먹여 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복을 빌어 주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를 만나 다시 살게 된 바울 선생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바울 선생이 돌아다

닐 때 부딪친 현실은 박해와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생 동안 애를 썼습니다. 바울 선생은 정말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예수도 역시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들을 용서해 달라,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스테반도 돌로 매를 맞을 때 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이 예수의 그런 기도, 스테반의 기도를 듣고 감동되었다고 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시작하셨고, 외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셨어요. 성경을 봐서 그런 소리가 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소리가 나와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바울 선생은 “너희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차가운 악이 몰려와도 더운 사랑에 녹고 맙니다.

얼마 전 기숙사 송별예배를 촛불예배로 봤는데, 그때 총장께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지만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그대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지만, 선은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생각해 봐도 잘 몰라요. 믿어야 될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빛의 관계는 이해가 되는데 선악의 관계는 빨리 들어오지가 않아요.

빌라도와 예수를 놓고 볼 때, 빌라도가 예수를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빌라도가 지고, 예수가 이겼다고 믿어야 해요. 예수가 선이니까 이긴 거다. 십자가를 지신 것, 그제 진 거지, 어디 이긴 건가. 그것이, 무언가 그래도 그것이 이긴 거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 이 헌법을 어디에 올려놓을 건가에 대해

여러 안이 나왔는데, 나중에 결국 3·1정신에 올려놓자는 안에 일치를 보았어요.

3·1정신이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란 것이예요. 일제 압박 하에서, 어떤 사람이 재판받을 때에 자꾸 신문訊問을 하고 못살게 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말했다는데, 그것이 참이지요. 한국 사람을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지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건 참이지요. 결국 참이 이긴 것입니다.

헌법의 시작을 8·15에 놓자는 안도 있었지만 3·1정신에 놓는 것은, 1919년 3월 1일이 참이 이긴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을 보고 한국 사람이라는 게 진짜지, 참이지, 한국 사람을 보고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이란 약한 거지요.

칸트는, 어린아이에게 “너 거짓말 해봐”라고 하면 아이는 머리를 흔들며 죽으면 죽었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도덕의 기초다, 라고 했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유관순이 죽을 때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외치고 죽었을 때, 사실 유관순은 이긴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죽었으니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이긴 것입니다.

3·1정신 위에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한 것을 나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옛날 3·1운동 때 총을 갖고 싸우지 않은 것을 펍 유감스럽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선생님에게 질문했더니, 그때 그것이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하기도 했지만 그때 인도의 간디의 영향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지도자들은 간디의 무저항주의가 무력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간디가 어떻게 무저항주의가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는 톨

스토이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의 사상은 그리스도 산상보훈이 제일 핵심이요, 그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저항이란 사랑이요, 사랑처럼 강한 저항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를 졌는데 그게 가장 강한 저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 후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이 흑인 해방운동을 하는데 무저항 저항을 한다고 들었어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마침 흑인해방 무저항 행진을 한다고 해서 구경을 하러 갔었지요. 그들이 행진하는데 연합정부군이 행진자들을 지키고, 청사는 주군대가 지키고 있었어요. 구경꾼은 하나도 없고 맨 앞에는 마틴 루터 킹이 행진하고, 그 뒤는 중고등학생, 그리고 그 뒤는 전부 백인, 그들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백인들이었지요. 큰 광장에 이르자 모여서 예배를 봤어요. 설교자는 다른 사람이었는데, 설교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우리가 한 20리를 행진해 왔는데, 남쪽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눈을 부릅뜨고 미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만약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행진했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 미워하는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지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비록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었다면 우리는 승리한 거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패배한 것이다. 우린 사람이 한번 되어보고자 이 행진을 감행하는 것이다. 한 발자국이라도 사랑을 안고 걸었다면 우리는 사람인 것이고, 미움을 안고 걸었다면 짐승인 것이다. 세상에 가장 강한 것,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인 것이다.

3·1정신이란 사랑의 정신인 것입니다. 3·1정신 위에 나라를 세웠다면 그것은 가장 강한 사랑 위에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사랑으로 달린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달리신 것입니다. 사람, 삶, 사랑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하루 누구를 사랑하고 살면 그게 정말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세계는 지는 것 같아도 이기는 것이고, 미움의 세계는 이기는 것 같아도 지는 것입니다. 링컨의 민주주의는 결국 지는 것 같아도 이기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이기는 것 같아도 지는 것입니다.(끝) 

- 이 글은 『김홍호 사상 전집 - 사랑 삶 사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홍호**(1919-2012) | 다석 유영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